

'2강·2중·2약' 큰 온도차...PO 경쟁 끝?

2약 하나원큐·BNK 나란히 4승16패 중위권과 큰 격차...사실상 PO 좌절 남은 관심사는 KB-우리 우승경쟁뿐

'이변은 없다?'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Liiv m 여자프로농구 2020~2021' 정규리그는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규리그 종료(2월 24일)까지는 아직 6주 가량 남아 있지만, 4위까지 진출하는 플레이오프(PO)의 주인공은 일찌감치 가려진 모양새다.

선두를 다투는 청주 KB스타즈와 아산 우리은행은 조기에 PO 진출을 확정했다. 이제 두 자리가 남아있지만 인천 신한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중위권, 부천 하나원큐와 부산 BNK의 하위권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 하나원큐와 BNK(이상 4승16패)는 중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벌어진 상태다. 두 팀은 남은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5할 승률이 채 되지 않는다.

예상된 결과다. 하나원큐와 BNK는 시즌 개막 이전부터 하위권으로 평가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잠정적으로 외국인선수 영입을 중단해 전력변화의 요인이 차단되면서 예상대로 판도가 흘러갔다. 시즌 초반에는 외국인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각 팀의 전력이 안정



되지 않아 서로 물고 물리며 혼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상·중·하위권이 뚜렷해졌다.

하나원큐와 BNK의 경우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좀처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WKBL이 외국인선수 제도를 중단한 데는 국내선수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줘 기량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두 팀은 연패가 길어지면서 1승이 귀한 처지에 몰리자 오히려 갈수록 선수 활용의 폭마저 좁아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BNK는 그나마 포워드 김진영(25·176cm)이 평균 11.0점·5.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포워드로 성장했다는 점이 수확이다.

사실상 PO 구도가 일찌감치 그려진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은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경쟁이다. 시즌 내내 엇치락뒤치락하며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다. 향후 두 팀의 매 라운드 맞대결 결과가 정규리그 우승팀을 가리는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앞선 3차례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이 2승1패로 앞서있다.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은 21일 시즌 4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후반기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여자프로농구에선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할 4팀의 구도가 일찌감치 드러났다. PO 진출보다는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벌이는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경쟁이 더 큰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WKBL



송교창 vs 허훈 vs 양홍석 vs 이대성 반환점 돈 프로농구...MVP 나야 나

반환점을 돈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 19일 전주 KCC-창원 LG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정규리그가 중반을 넘어선 만큼 최우수선수(MVP) 후보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외국인선수의 비중이 높은 남자 프로농구의 특성상 국내선수에게 주어지는 MVP 후보군을 압축하기도 민망한 시즌이 과거 있었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국내선수들의 비중이 부쩍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MVP 경쟁이 예상된다.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전주 KCC 송교창(25·200cm)이다. 29경기에 출전해 평균 15.3점(리그 6위·국내 1위)·6.3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그는 꾸준함이 돋보인다. 29경기 중 한 자릿수 득점 경기는 4경기뿐이다. KCC도 21승8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MVP 수상에 팀 성적도 큰 영향을 미쳤던 전례를 고려하면 MVP에 가장 가까운 선수다.

부산 KT의 원투펀치 허훈(26·180cm)과 양홍석(24·195cm)도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허훈은 29경기에서 평균 14.8점(전체 12위)·7.5어시스트(전체 1위), 양홍석은 30경기에서 평균 14.9점(전체 9위·국내 2위)·7.5리바운드(국내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MVP인 허훈은 승부처에서 팀 공격을 주도하는 해설사로 변신했다. 허훈은 승부처에서 팀 공격을 주도하는 해설사로 변신했다. 허훈은 승부처에서 팀 공격을 주도하는 해설사로 변신했다.

고양 오리온 가드 이대성(31·190cm)도 MVP 후보로 거론된다. 30경기에서 평균 14.9점(전체 10위·국내 3위)·5.1리바운드·5.6어시스트(전체 2위)·1.9스틸(전체 2위)로 공수에 걸쳐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며 역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대성의 가세로 오리온은 단숨에 가드 부재의 약점을 타고 18승12패로 상위권의 한 자리를 꿰찼다. 이대성은 2000~2001시즌 현주엽(당시 골드뱅크) 이후 첫 국내선수 평균 15득점-5리바운드-5어시스트에도 도전한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남자농구 순위 지각변동... '중위권 싸움' KGC·삼성에 달렸다

5위 KGC·7위 삼성 연패 추측
휴식기 이후 반등 여부 궁극중

등 상위권에서 선전했던 안양 KGC가 4연패로 중위권에 편입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엿보였다.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는 데다 서명진, 함지훈, 최진수 등 국내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인다는 게 장점이다. 3라운드 중반까지 중하위권을 맴돌았지만 최근 8경기에서 7승1패로 반등해 치열한 중위권 경쟁에서 탈출했다. 오리온을 0.5경기차로 맹추격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있다. KGC는 최근 4연패다. 양희종의 부상 이탈 이후 추종하고 있다. 수비에 강점을 드러냈던 팀 색깔이 다소 흐려졌다. 기대했던 외국인선수 크리스 맥컬러는 아직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3라운드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삼성도 최근 좋지 않다. 새해 들어 치른 6경기에서 2승4패에 그쳐 승률 5할이 깨졌다. 수비의 견고함이 미약해진 탓이다. 외국인선수 케네디 믹스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베테랑 김동욱을 제외하면 국내선수들의 경기력 회복도 심하다. 휴식기 이후 KGC와 삼성의 행보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올스타 휴식기를 맞았다. 전주 KCC가 선두 독주체제를 갖춘 가운데 순위경쟁은 점입가경이다. 특히 치열했던 중위권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격차가 크진 않지만 고양 오리온과 울산 현대모비스가 각각 2, 3위로 뛰어오르며 중위권과 거리 두기에 성공한 듯하다. 2라운드 반쪽 선두에 나서는

●'연승으로 상위권' 오리온 & 현대모비스
오리온과 현대모비스는 휴식기 직전 연승을 신고하며 상위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리온은 외국인선수들이 경기력에 기폭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대성, 이승현, 허일영 등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준 데 힘입어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그 덕에 오리온은 4위 부산 KT에 2경기차로 한 발 다가왔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4연승이다. 외국인선수 손 롱이 확실한

프로배구 <17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23	15	8	44	2274	2145	1승
2	KB손해보험	22	13	9	40	1975	1925	3패
3	OK금융그룹	22	15	7	39	2086	2051	2승
4	우리카드	22	13	9	38	1912	1880	3승
5	한국전력	22	10	12	33	2054	2039	2패
6	현대캐피탈	22	8	14	22	1908	2016	2승
7	삼성화재	23	4	19	18	1958	2111	3패

•경기결과

현대캐피탈 (8승14패)	3	2	한국전력 (10승12패)
---------------	---	---	---------------

남자프로농구 <17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CC	29	21	8	0.724	0	10승
2	오리온	30	18	12	0.600	3.5	3승
3	현대모비스	31	18	13	0.581	4	4승
4	KT	30	16	14	0.533	5.5	2승
5	전차랜드	31	16	15	0.516	6	1승
6	인삼공사	31	16	15	0.516	6	4패
7	삼성	31	15	16	0.484	7	1패
8	SK	31	13	18	0.419	9	2패
9	LG	30	11	19	0.367	10.5	1패
10	DB	30	8	22	0.267	13.5	1패

•부분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① 위니 SK	20.6	① 허훈 KT	7.5	① 홍 모비스	11.4
② 홍 모비스	19.8	② 이대성 오리온	5.6	② 데이비스 KCC	10.6
③ 라벤 LG	17.7	③ 김시래 LG	5.5	③ 라벤 LG	9.5
④ 희스 삼성	17.2	④ 김낙현 전차랜드	5.3	④ 위니 SK	9.1
⑤ 녹스 DB	16.3	⑤ 이재도 인삼공사	5.0	⑤ 라건아 KCC	8.8

프로골프 <17일>

•PGA TOP10
스니 오픈 인 하와이 3라운드

① 스티브(미국)	-18	② 나상욱(미국)	-16	③ 니먼(칠레)	-16
④ 말니(미국)	-15	⑤ 호프만(미국)	-15	⑥ 헨리(미국)	-15
⑦ 커키(미국)	-15	⑧ 싱크(미국)	-15	⑨ 마텔(미국)	-14
⑩ 김시우(한국)	-11	⑪ 이경훈(한국)	-9	⑫ 최경주(한국)	-9

아마추어 경기결과 <16일>

▶배드민턴 ▶2021 YONEX 태국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태국 방콕) •여자 단식 준결승전=마린(스페인) 2-0 안세영(한국) •남자 복식 준결승전=리양, 왕치린(대만) 2-1 최솔규, 서승재(한국) •여자 복식 준결승전=키티타리콜, 프라중자이(태국) 2-1 김소영, 공희웅(한국), 풀리, 라하유(인도네시아) 2-1 이소희, 신승현(한국) •혼합 복식 준결승전=푸아바라 누크로흐, 타에라타나차이(태국) 2-1 서승재, 채유정(한국)

해외축구 <17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1 맨체스터Utd.	17	36	11	3	3	① 실라 리버풀 13
2 레스터시티	18	35	11	5	2	② 손흥민 토트넘 12
3 리버풀	17	33	9	2	6	③ 버디 레스터시티 11
4 맨체스터시티	16	32	9	2	5	④ 칼버트-르윈 에버턴 11
5 에버턴	17	32	10	5	2	⑤ 케인 토트넘 11
6 토트넘	17	30	8	3	6	⑥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11
7 첼시	18	29	8	5	5	⑦ 벨로드 리즈 10
8 사우스햄튼	18	29	8	5	5	⑧ 윌슨 뉴캐슬 8
9 웨스트햄	18	29	8	5	5	⑨ 자허 크리스탈팰리스 8
10 애스턴빌라	15	26	8	5	2	⑩ 라차데리 아스날 7
11 아스날	18	24	7	8	3	⑪ 레쉬우드 맨체스터Utd. 7
12 리즈	18	23	7	9	2	⑫ 모뎀 브라이튼 7
13 크리스탈팰리스	18	23	6	7	5	⑬ 잉스 사우스햄튼 7
14 울버햄튼	19	22	6	9	4	⑭ 마데 리버풀 6
15 뉴캐슬	17	19	5	8	4	⑮ 바네스 레스터시티 6
16 브라이튼	19	17	3	8	8	⑯ 아르람 첼시 6
17 번리	17	16	4	9	4	⑰ 왓킨 맨체스터Utd. 6
18 풀럼	17	12	2	9	6	⑱ 그릴리우 애스턴빌라 5
19 웨스트브롬위치	18	11	2	11	5	⑳ 매디슨 레스터시티 5
20 셰필드Utd.	18	5	1	15	2	㉑ 수백 웨스트햄 5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첼시 1-0 풀럼	브라이튼 1-0 리즈
레스터시티 2-0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1-0 번리
웨스트브롬위치 3-2 울버햄튼	

•세리에A 경기결과

볼로냐 1-0 베로나	삼프도리아 2-1 우디네세
토리노 0-0 스페치아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도르트문트 1-1 마인츠05	호펜하임 0-0 빌레펠트
뉘른 0-0 헤르타베를린	슈투트가르트 2-2 뉘른베르크
브레멘 2-0 아우구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2-2 라이프치히

NFL <17일>

•경기결과

그린베이 32-18 LAR	버펄로 17-3 볼티모어
----------------	---------------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18일>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WKBL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BNK썸
--------------	------

오후7시, KBSN스포츠, IB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8일>

▶핸드볼 ▶제 27회 세계 남자 선수권대회(이집트)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SK호크스 아래)
•남자부=SK호크스-하남시청(오후4시30분), 인천도시청-상무(오후6시10분), 부산-충남도청(오후7시50분)